



## “당신들은 영원한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지난 11일 UN기념공원에서 열린 '턴 투워드 부산'에 21개국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이 방문해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오전 11시, 전세계가 남구를 향해 1분간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UN기념공원에 잠들어 있는 2,300여 6·25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기념하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부산을 향하여)'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 이날 같은 시각 미국, 캐나다 등 6·25 참전 21개국에서도 참전용사와 유가족, 정치인, 시민 등이 참여해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을 올렸고 부산 전역과 전국의 학교·군부대에서도 동참했다. 이로써 '턴 투워드 부산'이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추모행사로 자리를 잡게 됐다.

### 지난 11월 11일 11시 전세계 '턴 투워드 부산' 추모행사 각국 참전용사·유족 등 참여… 단일 규모 최대 행사 발진

이날 UN기념공원에서는 각국의 참전용사와 참전국 참전협회 대표, 유가족, 군장병, 시민 등 1,000여 명이 UN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앞에 모여 묵념과 함께 헌화, 추모사, 공연 등 추모행사를 가졌다. 특히 '턴 투워드 부산'을 맨 처음 제안한 캐나다인 빈센트 커트니씨가 한국전쟁 직후 부산지역 재건에 힘쓴 미군 군수사령관 리처드 워트킨 장군의 미망인 한모숙

여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턴 투워드 부산'에 앞서 오전 10시께 UN기념공원 터키 묘역에서는 아르슬란 하칸 옥잘 주한터키대사, 터키 참전용사와 현역 장성들이 참가한 가운데 터키 참전비 제막식이 가졌다.

한편 부산지방보훈청은 턴투워드 부산의 부대행사로 지난 15일부터 부산시내 초·중·고 학생 1,000여명이 UN평화문화특

구를 둘러보는 '턴 투워드 부산 발자국 투어' 행사를 가졌다.

### ■ 턴 투워드 부산이란

턴 투워드 부산은 한국전 참전용사인 캐나다인 빈센트 커트니씨가 2007년 한국전쟁 참전 UN군의 영령이 잠들어 있는 UN기념공원을 향해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 한국 시각에 맞춰 1분간 묵념과 추모행사를 갖고 제언하면서 시작했다. 11월 11일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이자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국가의 현충일이고 미국은 제대군인의 날(Veterans Day)이기도 하다.



문화재청의 '어르신 궁궐 첫 나들이'에 참여한 남구 어르신들이 경복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문화재청 초청 '어르신 궁궐 첫 나들이'를 다녀와서

## “구청이 자식보다 낫네 그려…”

### 어르신 15명 '서울 나들이' 부산서 남구만 단독 신청

“부산에선 남구만 신청을 했네요. 어르신들 모시고 서울 구경 잡히고 오세요.” 부산시 문화예술과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잠시 고민에 빠졌다. 정부 예산으로 가는 공짜 서울 나들이에 왜 다른 구청들은 다 빠졌을까? 조금 의아했지만 분명 좋은 기회일 것 같아 일단 해보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29일 남구 관내 만 75세~80세 어르신 15명을 모시고 문화재청의 2014 문화유산 누림사업인 '어르신, 궁궐 첫 나들이' 행사를 다녀왔다. 문화에 소외된 노년층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체험 사업이다. 부산,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등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남구만 참여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가운데 여행이 가능한 건강한(?) 어르신들을 추천받았다. 사전답사까지 꼼꼼히 마쳤지만 행사일이 다가올수록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다. 괜히 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서울은 꽤 쌀쌀하던데….

지난 10월 29일 새벽, 남구보건소 앞에 어르신 15분이 모였다. 나들이 차량의 어르신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누가 저분들을 고령자라 할 것인가.

버스는 한나절을 달려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한국의 집에 도착했다. 발을 내딛는 순간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였다. 특히 집현전 학사이자 사육신의 한 명인 박팽년의 사저여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팔도에서 모인 어르신 120여명이 도착하고 행사가 시작했다. 간단한 사업 소개를 마치고 식탁 위로 산해진미 궁중요리가 놓이기 시작했다. 이른바 '대장금 정식'이다. 오지족, 송채만두, 사설죽, 궁중 신선로 등 이름도 생소한 음식들이 순서대로 나왔고 드라마 대장금에 나온 인물들처럼 고운 한복을 입고 음식을 날라주는 종업원들이 너무나 정성스럽게 어르신들을 대해줘 황송할 따름이었다.

오찬이 끝나고 공연장으로 옮겨 전통예술포럼을 관람했다. 판소리, 부채춤, 설장구, 대금 연주 등 아름다운 우리가락에 취해 어깨춤을 추는 어르신도 있었다. 한 시간 가량의 공연이 끝나고 공연장을 나오자 사물놀이패가 마당까지 따라 나와 어르신들을 배웅했다. 옆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은 “공연이 너무 재밌어서 웃다가 소화가 다 되었다”고 하졌다.

마당놀이 한마당이 끝나고 문화재청 직원을 따라 500년 조선의 숨결이 스민 경복궁으로 이동했다. 파사로운 가을 햇살이 내려쬰고 경내는 단풍이 곱게 물들고 있었다. 경복궁을 병풍처럼 둘러싼 가을 북악산도 장관이었다.

국가적 행사를 치르던 근정전, 왕과 왕비의 집전인 강녕전, 교태전을 돌아 아름다운 연못 후원정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경회루를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경회루는 왕과 신하들이 규모가 큰 연회를 주재하거나 외국 사신을 접대하던 곳으로 뱃놀이도 즐길 수 있는 왕실 정원이다. 궁궐 해설사는 연산군 때 궁궐의 기생을 '홍정'이라 불렀는데 경회루에서 흥청들고 유흥을 즐겨 '홍정망정'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했다. 옛 이야기에 어르신들의 눈빛이 아이들처럼 반짝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르신들은 다들 너무나 행복했고 이것이 마지막 여행일지 모른다고 했다. “자식들도 이렇게 못해주는데 구청과 정부에서 해주니 정말 고맙수.”

빠박한 일정에 피곤한 탓인지 다들 잠에 꿀이 떨어졌다. 이때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참가자 가운데 최고령인 이 분은 이복이 고향인데, 1·4후퇴 때 열일곱 나이에 세 살 어린 남동생과 단둘이 피난 내려와 서울을 거쳐 20여년 전 부산으로 왔다고 했다. 하루하루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날 하루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행복하게 보냈다고 고맙다고 하졌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준 문화재청과 먼 길 불평 없이, 별탈 없이, 즐겁게 나들이를 마친 우리 어르신들에게 지면을 빌려 고마움을 전한다. 김미정 주무관(문화체육과)

남구 나눔장터 12월, 내년 1월, 2월 쉽니다.

### ‘쓰레기 민원’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보



본지에 제보된 '쓰레기 민원' 스미싱 문자.

최근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 문자 스미싱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스미싱 사기 문자는 정부 민원포털 민원24를 사칭해 '쓰레기 방지 및 투기근조' 민원이 신고되었습니다(사건 참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자와 함께 링크주소가 첨부되는데, 해당 링크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를 해킹하거나 소액결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시나 구청에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나 방치에 대해서는 우편 등 공문을 발송하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 ‘우암동 사진전’ 구청으로 구경오세요

### 임시수도기념관으로부터 넘겨 받은 130점 구민공원에서 야외 전시

남구는 서구 임시수도기념관에서 두 달여 전시된 '시간 속에서 걸어 나온 우암동 사람들' 특별기획전 사진자료와 야외 구조물을 기증 받아 지난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구청 구민공원 일원에서 전시한다.

전시되는 사진은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5개 테마별로 우암동의 시대적 변천 과정과 생활상이 담은 130점. 아기 백일사진, 피란시절 모습 등 우암동 주민들의 열반 속에 간직해 온 개인 사진과 1959년 동랑성당에 부임해 온 '하 안토니오' 몬시뇰 신부가 주민들의 삶을 기록한 사진 등이 다. 특히 1909년 수출우검역소 개소 당시

적기뱃머리에서의 일본으로 가는 수출우선적 모습이 담긴 회귀 엽서사진과 초량왜관 시절 부산항의 전경을 담은 '조선부산포로광화관도' 사본도 만날 수 있다.

이번 사진전은 임시수도기념관측이 "우암동 주민들의 삶을 기록한 특별사진전이 물리적 거리로 정차 우암동과 남구 주민들이 찾아오는데 불편을 느꼈다"며 더 많은 남구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사진을 관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진자료와 구조물 전부를 남구청에 무상 기증해 이뤄졌다. ☎607-4071



남구청 구민공원에서 우암동 사진전이 내년 2월말까지 열린다.

남구도 고급 요트시대 활짝 <4면>

새로 생긴 이색 갤러리 두 곳 <5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090331-중-12545호

인증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획득!

GRAND NATURE HOSPITAL

그랜드자연양병원

적정성 평가 1등급 병원

보석처럼 빛나는 자연속 명품병원

그랜드자연양병원

“최고가 아니면 비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 양·한방 협진하에 24H 의료·간호·간병서비스

- 문화가 있는 병원

월 웃음 치료

화 미술심리치료

수 찾아가는 노래방

독 음 악 치료

매일 정기 음악회/야외 음악회

병원장 나용승 의학박사 (경부산의대/동아의대/고신의대 외래교수, 부산의과대학후, 동인고후)

병원장 이재일 (내과 전문의/대한노인병학회 인정의/중앙대학교 의과대학후/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 고위과정 수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황령대로 355-14 | www.grandnature.kr | 보호자가 자부심을 느끼는 병원

상담의

051) 612.0075